

50 성전을 지은 솔로몬

열왕기상 5장 1절~9장 9절, 역대하 2~7장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할 것인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단지 그 앞에 ¹⁾분향 하려고 하니 청컨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보내 주십시오.”

두로 왕 히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을 뽑아 나무 베는 일을 하게 하였고, 7만 명의 ²⁾담군과 8만 명의 돌을 뜨는 사람, 3천3백 명의 감독하는 관리들을 뽑아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성전에 쓰이는 돌들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등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¹⁾ 분향: 향을 피움.

²⁾ 담군: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

성경 암송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성전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많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모두 백향목으로 지었고, 지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자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의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지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은즉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기록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나의 명한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을 찾아 읽고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고린도전서 6:19)

구원받은 나의 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 3:16)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라고
합니다. 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느니라
(에베소서 2: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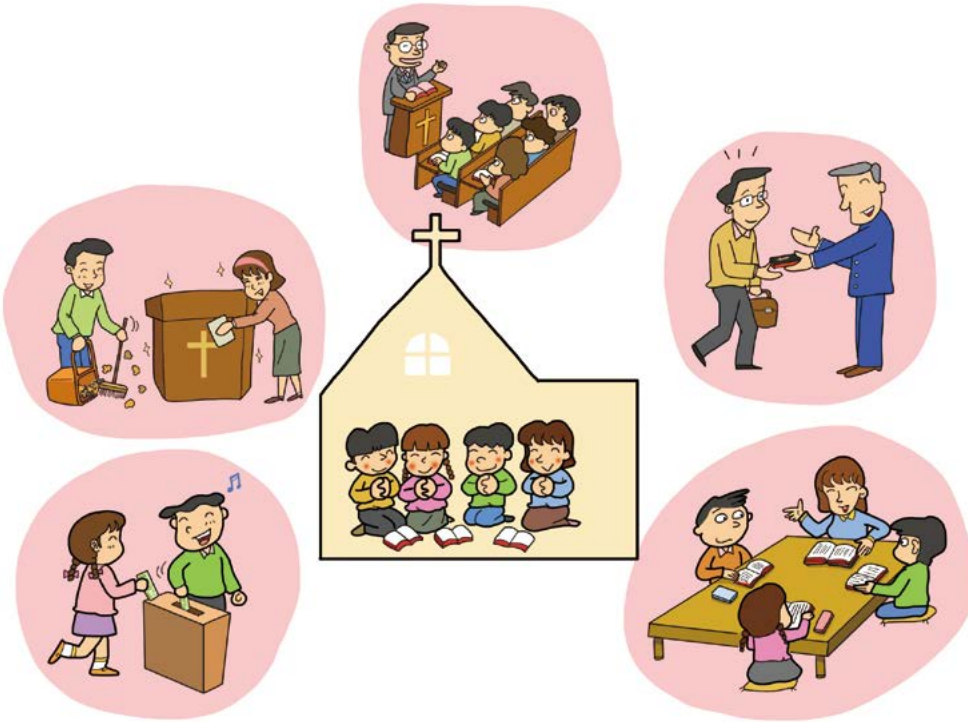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생각하여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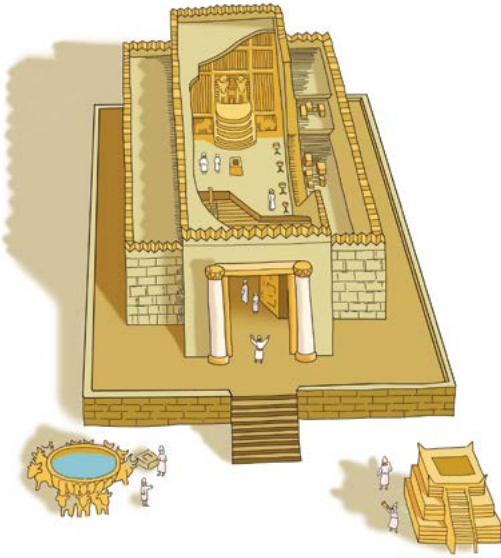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 화



솔로몬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중에서 솔로몬 성전은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세워졌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백성은 성전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